

녹색게릴라 자연미술사계절워크숍_2023 봄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PRING**

대안미술공간소나무

표지 사진 : 임정서

내지 사진 : 조재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자연미술 청년이 올까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워크숍_2023 봄

일시 : 2023.5.12 Fri-13 Sat (Online 2023.5.8 Mon-13 Sat)

장소 : 서울 은평 돌레길, 양주 공릉천

호스트 : 김순임, 오혜린

주관 : 대안미술공간소나무

후원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PRING



강현아 Hyunah Kang
강혜경 Heykyung Kang
권오열 Oyeol Kwon
김등용 Deungyong Kim
김성미 Seongmi Kim
김순임 Soonim Kim
김의선 Euysun Kim
박우찬 Uchan Park
오예지 Yezi Oh
오혜린 Hyerin Oh
이혜경 Hyekyung Lee
임승균 Seungkyun Lim
임정서 Jungsuh Sue Lim
장은경 Eunkyong Jang
전원길 Wongil Jeon
정승혜 Seunghea Jung
조재원 Jaeweon Cho
최예문 Yemoon Choi
최지은 Jieun Choi
홍서희 Seohee Hong
홍지희 Jihee Hong
Carlosde Gredos | Spain
Jahanbakhsh Amirbeygi | Iran
Jordi Gonzalez | Spain
Klega | Germany
Marty Miller | USA
Sergi Quiñonero | Spain
Zehra Khan | USA

녹색계릴라

녹색계릴라는 대안미술공간소나무가 주관하는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모임(지지워크숍)으로 자연미술워크숍, 전시, 출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한다.

우리가 즐겨 자연을 찾는 것은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공명하는 몸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싹 틱워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땅, 물, 빛,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모든 물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생각하고 반응한다.

자연의 생명력이 나의 무심한 발상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자연과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지'라 부른다. '지지'는 자연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소한 행위의 결과이며 놀라움이다. 자연에서 생겨난 '지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녹색계릴라는 지식의 횡포와 경쟁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자유 미술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갈 것이다. 자연 깊숙한 곳에서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이르는 녹색계릴라의 활동이 이 시대 예술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며, 땅의 지혜를 담은 '지지'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예술이 되길 소망한다.

Green Guerrilla

Green Guerrilla is a Nature Art research group hosted by Art Space Sonahmoo. Green Guerrillas communicate through Four Season Nature Art workshops(gg Workshop), exhibitions, publishing, residency programs.

The reason we often enter into nature is to revive the nature of the body that resonates with the flow of nature tha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feel the energy of the earth, water, light, and wind that spurts, grows, and bears grass and trees, and we listen to the sounds of living things and all objects between heaven and earth. We meet nature with an open mind, and think and react with nature to become one with nature with free gestures.

The moment nature's vitality strikes a harmonious balance with my humble idea, nature and art become one. We call this state the Green Guerrilla's 'gg'. 'gg' is the result and the surprise from small human actions in response to nature. The 'gg' created in nature disappears in time, but it seeps into people's minds through various forms of expression.

Green Guerrillas will free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knowledge and the oppression of competition and open up togeth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free art.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green guerrillas from the depths of nature to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 deliver a fresh energy to the art world of this time, and that 'gg', which contains the wisdom of the earth, becomes the art that lives with people.

강현아 Hyunah Kang



색을 가진 식물



무늬를 가진 돌과 장판조각

강혜경 Hyekyung Kang









권오열 Oyeol Kwon



진관나한



쓸모없음의 쓸모



아직 봄인데



낮선 숲

김등용 Deungyong Kim



자연미술행동 봄 23

김성미 Seongmi Kim





비석

어느 한 쪽에 우위가 주어지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는 '아름다운 수평'을 지향하고자 하는 나에게 은평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된 돌레길을 걷는 것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 산행자의 편의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행위는 짧게는 수 년, 수십 년, 이미 그곳을 점령하고 살아가던 그들의 영토를 침략하였다.

일부러 돌받침 길이 아닌 시간의 흔적, 그루터기를 따라 걸었다, 비뚤비뚤하고 돌아가더라도 그리 급할 것 없는 숲 속에서 잠시 멈추는 내 발걸음, 그들에 대한 묵념이다.

녹색계릴라 봄 프로젝트 2023.05.12



두 개의 숲-만세

나무들, 드디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다. 오랜 시간 동안 '땅 속 뿌리'는 내게 연민의 대상이다. 땅 위와 아래 한 몸으로 이어져 주어진 역할을 한평생 잘 수행한다. 흙을 움켜쥐어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고정하고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이동, 저장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속에서 분주하고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 그 존재를 인식할 때는 식물이 생을 마치고 폐기될 때이다. 잠시나마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뿌리 사이사이에 바람이 지나고 햇빛을 쬐고 그들도 만 들어 숲으로 살기를 바란다.

녹색계릴라 봄 프로젝트 2023.05.12



김순임 Soonim Kim



흐르는 돌 공릉천





자연화3 진관계곡

김의선 Euysun Kim



사실 나뭇가지의 도움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2023)

유충 상태의 매미가 부러진 다리와 함께 뒤집어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계속 바라보았는데

3명의 아동이 다가와 나뭇가지로 매미를 굴러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못 움직이는 애야'라고 말했더니

한 명이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어떻게지'

다른 한 명이 '그럼 물어주자'

다시 다른 한 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물어 살려야지'

또 다른 한 명은 방금 말한 둘이 원하는 대로 하자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은 다시 매미를 살릴 방법을 고민하며

열심히 나뭇가지로 매미가 기어갈 수 있게 배가 다시 땅으로 가도록 뒤집고 있었습니다.

매미를 물어주자던 한 명이 등산지팡이로 매미를 건드리려고 하자

매미를 살리자고 하던 한 명이 그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하면 다친다고 저지합니다.

세 명은 다시 고민하다가 풀숲에 놓아주기로 했으나 누구도 징그럽다며 매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미를 들고 그 세 명이 원하는 곳에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던 걸 걱정하던 한 명만이 저를 따라와

매미 옆에 매미가 쉽게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두었습니다.

박우찬 Uchan Park



색즉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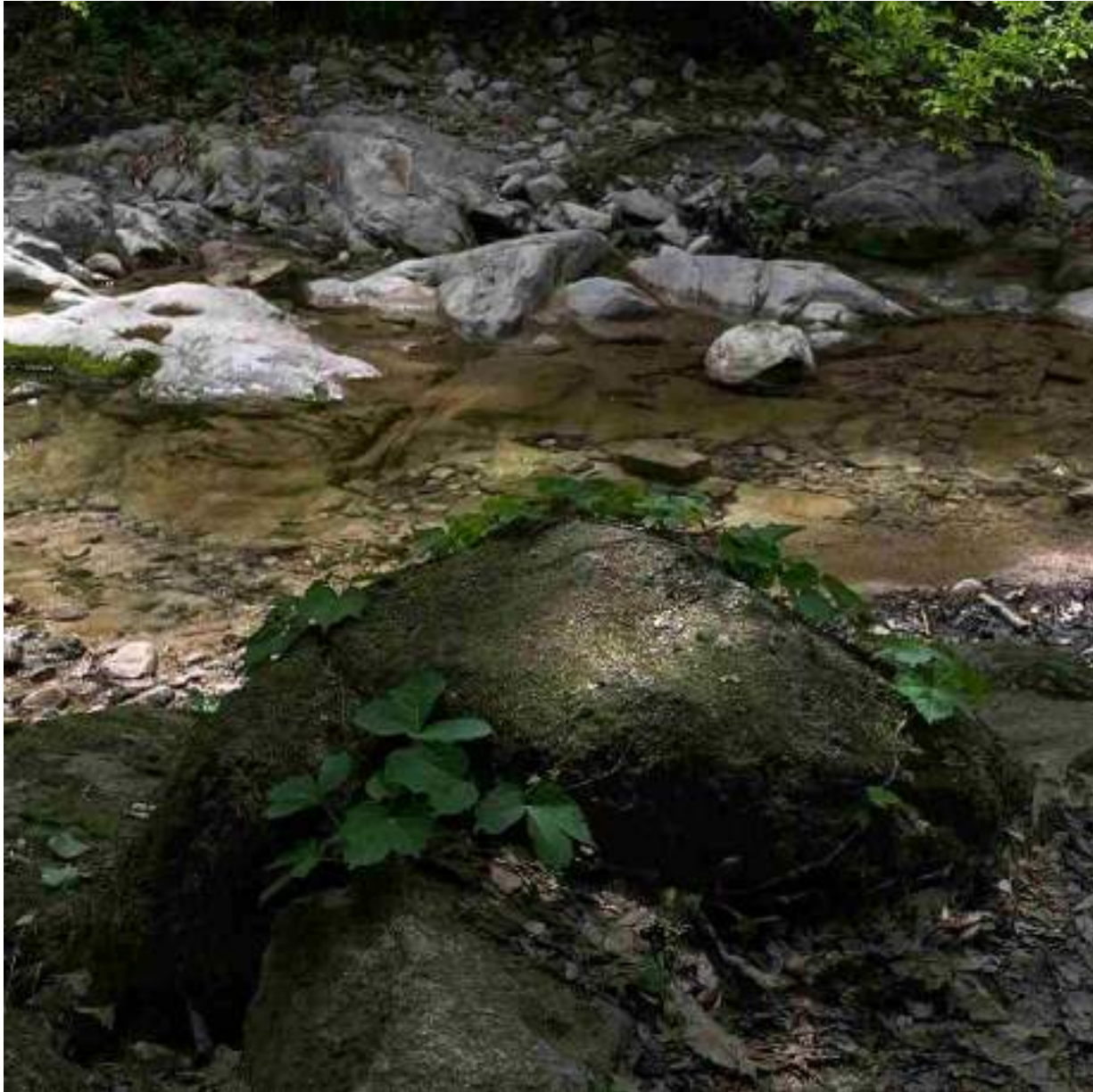


Snake





오예지 Yezi Oh



디오니소스 2023





오혜린 Hyerin Oh

물과 돌 3_things I encountered on
2022~2023 흐르는 물, 콘크리트, 자연석 _공릉천 사진기록



물과 돌 3

오혜린

하늘에서 물이
평소보다 많이
쏟아지듯이
땅에 닿은 물들이 움직인다
그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을 띄우고
같이 낮은 곳으로
낮은

나는
시멘트 위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물들이 나를 띄우고
같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들이
물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물들이
물들과
내가
흘러
흘러
낮은
곳으로

가다가
만나게 되었다
돌
돌
돌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돌이
돌과
흘러
흘러
흘러

물들이
물들과
나와 돌을 지나
흘러
흘러
흘러



불들린 detain
2023 흐르는 물, 불들린 잎, 발_진관사 일대

이혜경 Hyekyung Lee



흔적





이별



구도

임승균 Seungkyun Lim

I miss you_2023



임정서 Jungsu Sue Lim



강아지똥풀을 크레파스로 바위에 옮기기





자연에서 사진으로 담은 강아지똥풀



꽃끼리

목긴 오리랑 오혜린 작가님
고고학자 장은
숙소 개



장은경 Eunkyong Jang



드로잉 (feat, 관절나무)



갈빗대 (feat, 관절나무)



그림자 드로잉 1



물구나무 서다가 죽을 뻔

전원길 Wongil Jeon



천변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붉은 벽돌을
푸른 풀밭에 놓았다.
그림자가 내려 앉았다.

붉은 벽돌 20230512, 양주 공릉천





무제
20230512, 양주 공릉천

물에 반쯤 잠긴 네모난 돌을
발견했다. 작은 돌을 던져 물
방울 네 개를 튕겼다.





그림자 드로잉 20230513, 서울 진관사

정승혜 Seunghea Jung



자연미술청년 다큐멘터리 영상스케치 제작중



물결

조재원 Jaeweon Cho



하나의 영혼과 몸, 꿀벌 공동체

조재원 UNIST 교수



꿀벌의 멸종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 새로운 시각으로 꿀벌의 운명을 예감한 루돌프 슈타이너가 있었다. 슈타이너 박사에게 꿀벌은 벌 군집의 몸이고 여왕벌은 그 몸의 영혼이었다.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방어하는 꿀벌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영혼이 여왕벌이므로, 꿀벌 군집은 한 몸이고 한 영혼인 것이다. 그는 꿀벌의 멸종 위기 원인을 주류 과학자들과 다르게 보았다.

꿀벌은 인류 식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작물의 약 70%를 수정한다.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에 비해 꿀벌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한 지역의 경우, 2006년에 비해 꿀벌이 4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작년과 올해 국내 사정도 심각하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농약, 바이러스 감염, 진드기, 전자파 등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기후 변화 원인도 거론된다.

꿀벌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한다. 여왕벌이 알을 낳아 벌집 속 육각형 공간에 두면 태양의 자전주기 21일만에 암벌인 꿀벌이 태어난다. 여왕벌과 수벌이 부화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16일과 25일로 꿀벌과는 다르다. 꿀벌 군집의 생명과 특성이 태양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설할 수 있다.

숫자뿐 아니다. 같은 알이라도 태양의 힘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벌집 육각형 공간 속에 두면 암벌인 꿀벌이 태어나고 바닥에 두면 수벌이, 자궁 모양의 자루 속에 두면 여왕벌이 탄생한다. 이는 동일한 DNA를 가진 세포라 하더라도 뇌를 구성하면 두뇌 활동을, 내장 기관을 구성하면 소화 등 생체 대사 기능을, 피부와 근육이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생명체의 세포와 닮았다. 벌 한 마리는 벌집 공동체라는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치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게 되어 몸 전체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는 것이다. 꿀벌은 집을 지키며 꽃에서 가져온 수액 넥타를 소화해 꿀을 생산한다. 여왕벌은 군집의 영혼을 담당하면서 중심을 잡고 생명 탄생을 담당한다.

드론(drone)인 수벌은 무슨 일을 하는가? 드론은 '빈들거리면서 논다'란 뜻을 가진다. 평생 놀고 먹는 수벌도 한 가지 일을 한다. 여왕벌이 수태하는 것을 돕는다. 하지만 여왕벌은 무성 생식을 하므로 수벌은 여왕벌과 짝을 짓는 게 아니라 경호하듯 주위를 맴돌 뿐이다. 화창해 태양의 기운이 좋은 날, 여왕벌은 하늘 높이 태양을 향해 비행한 후 수태한다. 꿀벌과 태양의 두 번째 신비로운 관계인데, 수벌 드론은 비행하는 여왕벌 주위를 맴돌면서 보호한다. 온 힘을 다해 경호하기에 여왕벌의 수태 비행 이후에 수벌 드론은 탈진해 죽고 만다.

발도르프 교육철학과 동종의학을 제창하고 칸딘스키를 포함한 여러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루돌프 슈타이너는 꿀벌의 사라짐은 다름아닌 인간의 양봉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인위적으로 여왕벌을 분양하고 키우는 방식을 사용한 양봉으로 꿀벌 생태계의 영혼에 손상이 갔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여왕벌을 벌집에 넣으면 다른 여왕벌과 함께 살았던 꿀벌들은 큰 동요를 일으키고 여왕벌 영혼에 눈이 부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면서 많은 꿀벌들은 죽고 만다.

하나의 가설로 치부해 버려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운명을 맡긴 인류가 꿀벌의 운명과 다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채널PNU(<https://channelpnu.pusan.ac.kr>)

최예문 Yemoon Choi



몸을 누이고싶을 만큼 자라 오른
풀섶을 발견했다
안에 들어가 엎드려도 보고
하늘 향해 눕기도 한다
반듯이 누우니 여기가 집이다
풀섶을 나섰을때
그가 흔적을 남겨 나를 기억해 주었다

흔적 Trace





물 가르기



때로 부딪치고 비껴간다
 오색 연등에 몸 실어
 나도 하늘을 오를 듯 싶건만
 그림자 길이 끝나며 다시 땅 위에 선다

오색 연등 행렬이 하늘을 가리고
 빨아래 길이 생겼다
 그림자로 난 길이다
 김 따라 걷는다
 바람 따라 길이 흔들린다

길을 걷다
 Walk
 비디오 6:37



최지은 Jieun Choi

파동을 일으키는 者

조용한 물가에
파동을 일으킨다
작은 파동이 자라나 변화를 일으킨다
나는
끝없는 삶의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다





홍서희 Seohee Hong





홍지희 Jihee Hong



너에게 가는 길

풀숲을 걷다 보면
내가 지나온 길에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정확히 지구의 중심을 비뚤비뚤 가르다.
모든 장소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 장소와 그 중심에 서있는 존재는 늘 중력으로 만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이다.
너에게 가지 않아도 함께이다.

feat. 김순임





숲을 움켜쥔 그들은

흙을 움켜쥔 그들이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함께 물구(나무)로 숲을 이루다 .

feat. 홍서희, 장경



Carlos de Gredos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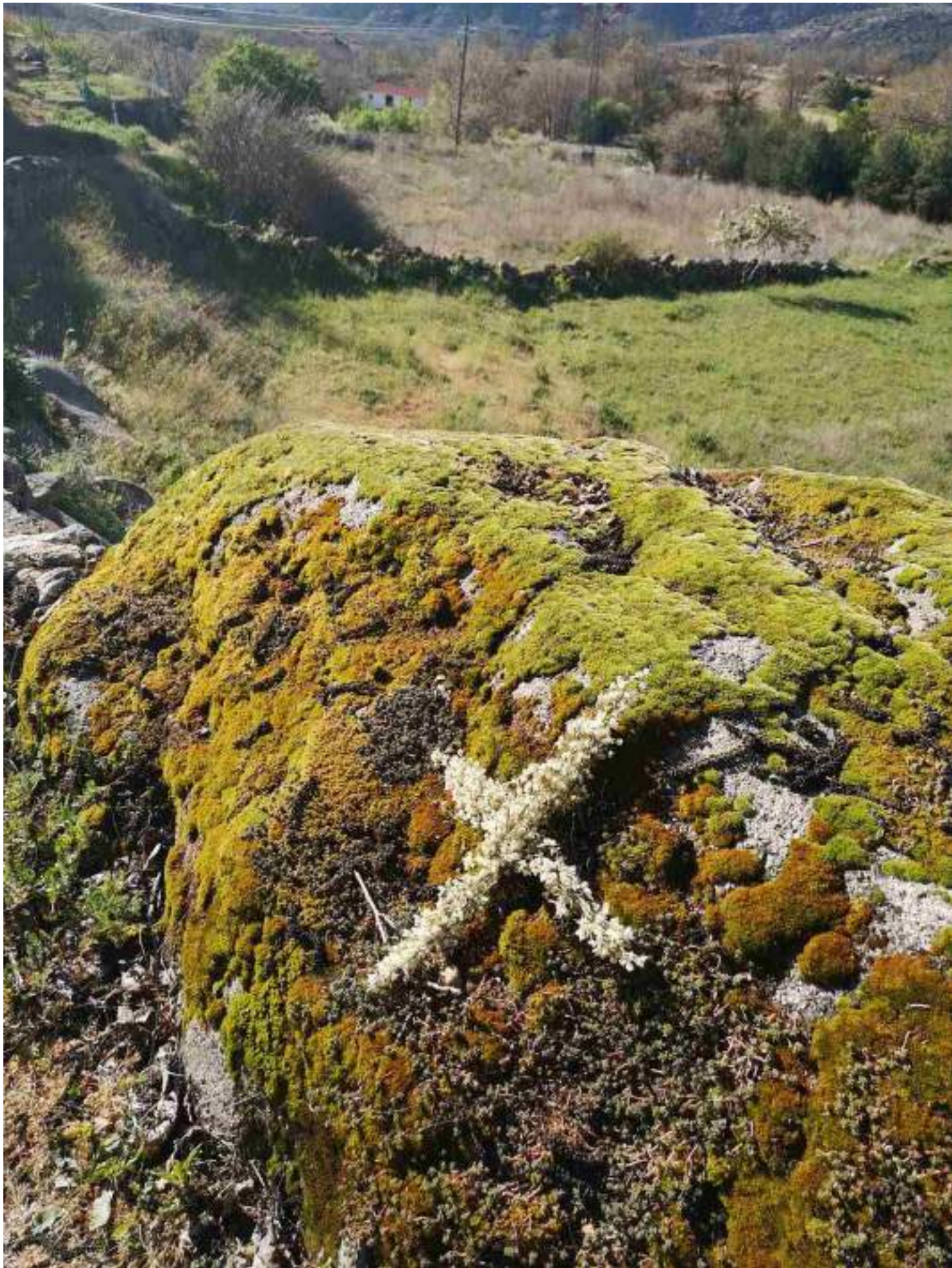
Party decoration Spring 2023



Seed mortar Spring 2023



I looked out your window Spring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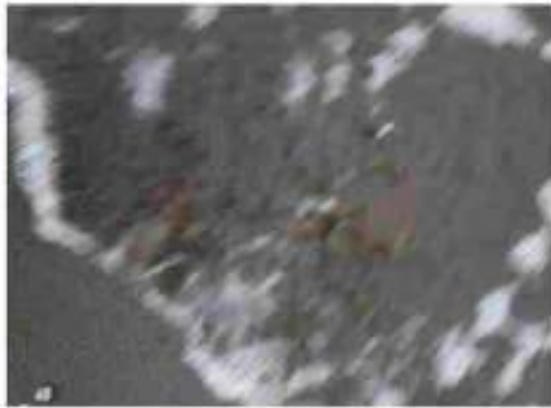


Water adds up and multiplies
Spring 2023

Jahanbakhsh Amirbeygi (Iran)



Vaccum Chalooos-Iran, 2023





Crossing Barrier Chaloos-Iran, 2023

Jordi González (Spain)

Fennel inflorescence spheres rolling freely through a third landscape



This project can be titled as "fennel inflorescence spheres rolling freely through a third landscape". I used dried fennel to shape spheres. Fennel is a common plant in the landscape margins in our Mediterranean area. I made them roll downhill and left them around to observe their behavior during some weeks. This downhill rolling can spread some seeds to restore this spoiled landscape after human interference. This project is inspired by some Robert Smithson's works in a very respectful way. The place chosen is what Gilles Clement called Third landscape, a residual portion of land left after human destruction where plants colonize again and becomes a sanctuary for biodiversity. This work is a part of my core investigation for my PhD.







Klega (Germany)



Dot A, Dot B



Dandel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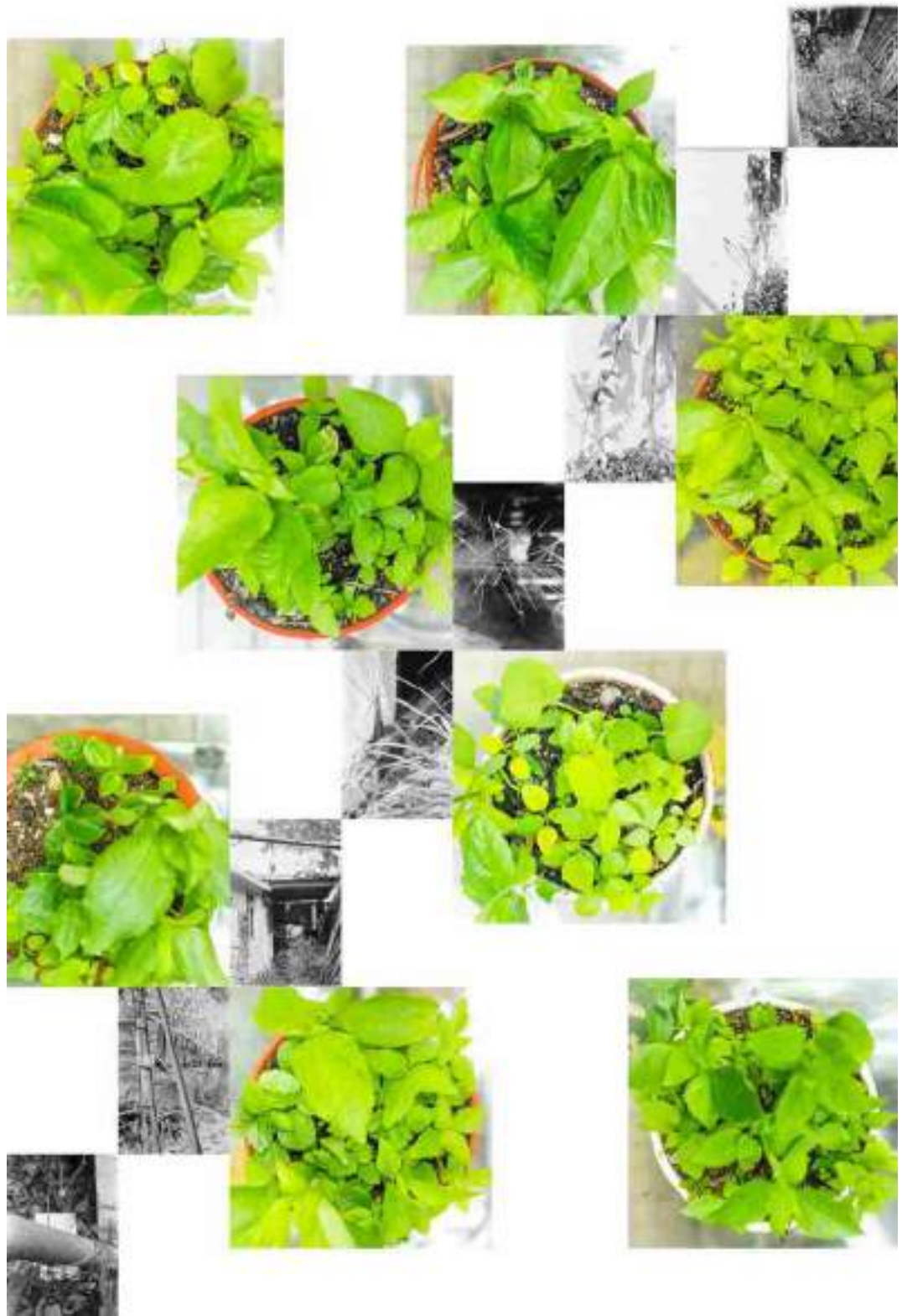


Willow A, Willow B



Cropped Grass

Marty Miller (USA)



Digestive Pattern with Marigold

For two years, the watery contents of a kitchen sink were emptied into a ditch separating a house from an overgrown hill. To reclaim this narrow gap, the ripe sludge in this space was emptied into eight pots with marigold seeds. As the spring rains began, a pattern of consumption grew.

지난 2년 동안 부엌 싱크대의 물기 가득했던 내용물들이 잡초가 무성히 자란 집 언덕의 배수로로 비워졌습니다. 이 좁은 틈을 메꾸기 위해 배수로에 남아있던 오래된 진흙들과 잔여물들을 8개의 화분에 다시 옮겨담아 금잔화 씨를 심어놓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분 섭취량이 늘었습니다.

Sergi Quiñonero (Spain)

Border

Limestone

Length: 152 cm. Width: 12 cm. Height: 25 cm.

Riera dels Marmellans. Tarragona (Catalonia)

Collection: May 2023. Installation: 2023.5.10

The climate crisis and the drought it is causing in the Mediterranean area will be a source of serious problems in the near future.





Zehra Khan (USA)



Hair Field
Chicago, Illinois, USA

My hair looks like a field of wild grass
with paths carved by the wind
I am in my apartment
and the field needs
light and water and rock and plant and animal





워크숍 스케치 Workshop Sketch



워크숍 후기

5월12일에서 13일까지 일 박 이 일로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서울 은평한옥마을 둘레길과 양주 공릉천에서 열렸다. 김순임, 오혜린 작가가 호스트로서 전체 진행을 맡아 주었으며 현장워크숍에 20명, 온라인으로 8명의 작가가 참석하였다.

첫째 날/ 양주 공릉천

양주 공릉천은 오혜린 작가의 집과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작가는 매일 산책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사계절을 아우르고 주변이 아파트와 문명으로 잠식되어가는 과정을 안타까이 지켜보고 있다. 공릉천은 자연하천으로서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오리와 가마구지 등 많은 종류의 새들을 관찰 가능하다. 한 작가의 작업에 다른 작가가 호응하기도 하고 연계된 작업과 퍼포먼스가 행해지며 군더더기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작가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김순임 작가의 도움으로 넓고 쾌적한 한옥을 숙소로 사용하고 초록의 넓은 정원과 바비큐_괘창한 하늘과 바람_텃밭 채소_부침개_된장국_녹색계릴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일정이 순조롭다.

근황토크가 이어진다. '관계예술'은 관객 참여형 예술을 넘어 관객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 예술이라고 했다. 「녹색계릴라 자연미술워크숍」에서 관계예술적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임의의 장소에 모인 작가들이 자연과의 만남 속에 즉흥적 발상으로 작업하는 자연미술은 개인의 작업을 넘어서 워크숍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동 작업이다.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둘째 날/ 서울 은평둘레길, 한옥마을

삼각산금암미술관 김순임 초대전 '흐르는 공간'을 관람하였다. 김순임 작가의 그간의 작업들이 집약된 훌륭한 전시다. "최근 본 전시 중 최고다", "한옥의 실내에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전시는 앞으로 힘들 것이다", "꿈에도 못 잊을 전시다" 등 관람객들의 반응을 접하였다.

은평둘레길 계곡과 숲, 진관사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점심 식사 시간을 따로 잡지않아 작업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

은평한옥마을 '너나들이센터'에서의 작업 PT/ 온라인으로 보내온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자연미술가 청년이 올까' 가 조합되었다.

다음 계획은

여름 워크숍은 임승균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화성시 매항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정기 워크숍 외에도 계기성 워크숍이 몇 차례 더 열린다. 녹색계릴라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미술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다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자연미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 쉬는 예술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전원길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워크숍_2023 봄

발행처 : 대안미술공간소나무 (대표 최예문)

발행일 : 2023.5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_2023 Spring

Published : Art Space Sonahmoo

Date : 2023.5

©2023 Art Space Sonahmoo. All rights reserved

gg

Green Guerrilla

Nature Art Four Seasons Workshop

2023 Spring